

## 야누스적 회상

金 顯 格  
(國民大 英語英文學科)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글을 써 달라는가, 한동안 어리벉벉했지만 무엇이랴도 써야 하는 마당에 나의 지난 대학시절을 되돌아 보며 지금의 나를 반성하는 일도 딱은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 같아 용기를 내기로 했다.

1958년은 전쟁의 불길을 꽤 잊어가던 때였다. 거리에서는 종종 미군 째치며 군 트럭이 질주를 하고 시발택시가 돌아다니던 때였다. 전차도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다니지 않았던가? 이승만 대통령의 말기, 모두 염증을 내고 있었다. 그러던 4월초, 나는 교복에다 빵떡 모자를 들고 운동장에 나갔다. 나와 비슷한 학생들이 이미 모여 있었다. 그날은 교가를 배운 것으로 거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학부형도 없었고 꽃다발은 더더욱 없었던 입학식이었다.

다음날 수강신청을 하는데 가관이었다. 자기가 들어야 할 과목을 안내서를 보며 짜넣어야 하는데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라 실수연발에 갈팡질팡이었다. 가까스로 짜넣고 나니 하루가 가고 첫날이었다. 지금 조교가 수강지도를 꼼꼼히 일률적으로 하게 된 것은 그때보다 선택할 여지가 적고 이수학점도 줄어들어 틀려도 좋을 여지가 없게 된 탓도 있을 것이다.

교양학과는 고등학교 때와 비슷하게 외국어 선택을 기준으로 몇 학과를 합쳐 약 50명 단위의 반을 짰다. 이때 만난 이웃 학과 사람들과의 교우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가 되었다. 지금은 학계에서 쟁쟁한 이름을 날리는 학자들도 많고 높은 관직에 있는 친구들도 더러 있다. 교양과목은 고등학교의 수준을 약간 넘는 것들이라 실제로 전율을 일으킬 감동 따위는 별반 없었다. 그러나 전공 과목에서는 달랐다. 전국적으로 명성을 날리는 선생님들께 직접 강의를 받는다는 것이 당분간 너무나 행복했다.

그때는 과별로 소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행사가 없는 때라 어느 과목이 무슨 성격을 가진 것인지 직접 들어가서 알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영문학개론은 신입생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과목일 수밖에 없다. 첫 시간에 선생님-그때는 교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은 Concise Oxford Dictionary (C.O.D.)를 소개해 주셨다. 이 사전은 능률을 고려하지 않아 초보자가 보기에 무척 피곤한 체제였지만 신통하게도 영한사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어휘, 단어풀이, 용례가 있었다. 뜻풀이를 한 단어가 어려워 그 말을 다시 찾아 보아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였다. 지금 이 사전은 완전히 새로운 체

제로 효율적으로 편찬하였을 뿐 아니라 발음기호까지도 집어넣어 가히 환골탈태한 격이 되었지만, 그때는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은 사전을 붙들고 밤을 새가며 단어를 찾느라 눈이 아플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 사전을 사랑하지 않고 영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리라. 그때 입학기념으로 산 C.O.D.는 이제 손때가 까맣게 묻어 은퇴한 저 오래이지만 지금도 조강지처처럼 방 한구석에 석락한 모습으로 놓여 있다.

이 사전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여전하여 지금도 내 첫 시간은 이 사전을 위시한 다른 사전들의 소개로 한 시간을 다 채운다. 컴퓨터가 발달해서 앞으로는 사전이 따로 필요할 일이 없을 것이라 성급히 예언한다 해도, 결국 외국문학은 좋은 사전의 도움없이 읽어낼 도리가 없을 것이다.

다시 옛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업시간에 공부한 분량을 따져 지금과 비교한다면 그때의 것은 너무나 빈약하였다. 일일이 해석하거나 읽어 나가는 방법을 썼기 때문에 한 학기에 한 소설의 반이면 많은 편이고 심지어는 서너 챕터에 그치는 경우도 많았다. 그때는 철저하게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 깊이를 음미할 수 있는 장점도 있었다. 아쉬운 점은 해석하기에 바빠, 그 의미나 전체적 구조 등에 대한 토론의 시간이 적어 한 문학 작품을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공동작업이 없었다. 이 문제는 사실 지금도 크게 개선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때보다 분량은 확실히 많아졌지만, 소화를 위한 공동작업, 즉 토론은 별반 없는 셈이다.

옛날 선배들의 지론인즉슨, “공부는 혼자서 자기가 하는 것이니라... 따라서 학교에서 하는 공부에 대해 기대하지 말지니라”하는 것이었다. 백 번 옳은 말이기도 하지만, 그 많은 시간을 들여 혼자 찾아 헤매는 고통을 생각해 본다면 교실에서의 적절한 몇 마디 길잡이야말로 목마른 사람을 위한 감로수가 될 것이다. 그런 풍조 때문이었는지 그때는 휴강이 그렇게 많았다. 휴강 소식이 알려지면 모두 속 없이 좋아하였고, 우루루 몰려 나가 날씨가 좋을 때는 잔디밭에 둘러 앉아 영화 얘기며 책 얘기 그밖에 살아가는 얘기에 한 시간이 후딱 달아나곤 하였다. 요세도 휴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옛날에 비하면 거의 없는 편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좀 달라진 풍속은 휴강을 학생들이 요구하거나, 더 고약하기로는 일방적 통고로 휴강을 시키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惡風은 뿌리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없애야 할 일이다.

전에 비하면 요세는 집단행동이 펴 갖은 편이다. 앞서 말한 휴강요구도 그 예에 속한다. 대학생의 최소가치가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과잉보호의 교육 탓인지, 지금 학생들은 정말 혼자 있기, 혼자 무엇을 하기, 혼자 생각하기를 두려워하고 꺼려하며, 집단의 그늘 속에 숨어 있기를 좋아한다. 대학생은 사회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인데, 이처럼 독립심도 부족하고 책임지기 싫어하고 옳고 그름의 판단을 집단의 뜻에 맡겨버리는 안일한 태도를 갖고서는 올바른 지도자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집단의 부속품이 되는 데에 만족하는 분위기에서는 괴짜의 출현을 기대할 수 없다. 괴짜는 차림새에서부터 남과 같이를 거부한다. 생각하는 것도 남을 앞질러야 하고 남이 모두 하는 것은 굳이 피하려고 한다. 괴짜에게 가장 치명적 모욕은 무엇과 누구와 비슷하다는 말일 것이다. 괴짜의 출현은 그를 사랑하고 우대하는 풍조, 즉 알아주는 풍조에서 가능하다. 전에는 괴짜의 괴팍한 행동을 멋있다고 칭송 내지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다. 여유에서 나오는 아량일 것이다. 텅자울타리 전지하듯이, 반듯하게 뜯출부분을 자르기 좋아하는 요세 같은 세상에서 괴짜의 얘기는 전설로 이어지거나 정신병의 증상 예화 정도로 취급되기 일쑤이다.

괴짜를 허용하지 못하는 세상에서는 創意的 發展을 기대하기 어렵다. 에디슨이 괴짜노릇 하는 것을 끝내 교정시키려 했다면, 그 많은 발명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인슈타인의 괴짜적 기질이 암전히 제도교육에 길들여졌다면 상대성이론이 나올 수 있었을까? 언필칭 인재를 기른다는 우리들이 기실은 규격제품을 포장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다.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가차없이 내버리면서 말이다.

옛날과 비교하여 확연히 달라진 것 중에 아쉬운 것은 學點의 축소이다. 지금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140 학점이면 충분하지만 그때는 160 학점을 취득해야 했고, 대부분은 그 이상 취득하여 졸업을 했다.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로 잰 듯 꼭 140 학점에 맞추는 풍조이고 거기서 조금 더 넘어가면 몹시 억울해 한다. 그런 까닭인지 졸업입시에 가서야 학점이 모자라는 것이 드러나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다.

기실, 졸업을 하는 데에 왜 140 이상이라야 하느냐 따져 물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160 학점일 때보다 과목 수가 많이 줄어, 꼭 해야 할 과목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만큼 학생들에게는 기회가 줄어든 셈이다. 원래 이처럼 과목 줄어든 것은 한 때 실험대학을 시행하면서 학점을 줄여 남는 시간에 학생이 자율적으로 공부하게 한다는 상당히 그럴듯한 취지에서 시작된 것이었는데 오늘날 실험대학은 없어지고 학점만 줄어든 꼴이 되어 버렸다. 다시 회복시키면 되지 않는가 하는데, 여기에는 상당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사립대학교가 꺼리게 되고 덩달아 국립대학교도 굳이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하자면 실험대학은 사립대학의 운영난을 약간 도와주는 선에서 끝나고 말았다. 그런데 원래 취지대로 학생들이 엄청나게 남는 시간을 과연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보면 전혀 그러하지 않는 것 같다. 학생들이 정치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는 것도 축소된 학점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학졸업자의 職이 어렵다 못해 하늘의 별따기라고 개탄하고 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크게 부각되어 있어서 같이 걱정을 안 하면 적어도 제자를 사랑하는 선생이 아닌 것으로 지탄을 받기 쉽다. 그러나 이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곤혹스럽기 그지 없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대학의 설립목적은 취직과 무관하다. 더구나 문학을 가르치는 학과에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훌륭한 敎養人을 양성하자는 것 이외의 모두 부차적인 목적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이처럼 한가한 이상론을 용납하지 않는다. 최소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성의 표시를 교과과정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영어회화, 영어작문이 강화되고, 심어지는 시사영어, 취적영어라는 괴상한 과목도 생겨났다. 반면에 순수 문학 강의는 외면을 받기 십상이다. 17세기의 詩가 취직과 무슨 관련이 있겠는가? 초서의 영어가 일류 기업의 입사시험에 등장하지 않는 한 그가 우리 학생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 같다. 극소수의 학교 말고는 중세영어라는 과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셰익스피어도 한 학기에 끝내버리는 추세이다. 따라서 어떤 중역이 향수에 못 이겨 영문과를 나왔다든 입사수험생에게 햄릿이나 맥베스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면 그러한 것은 시간이 없어 못 읽었노라는 놀라운 대답을 듣게 될지도 모른다. 토마스 칼라일의 의상철학은 문학과 관계없는 작품으로 생각할 영문과 출신이 양산이 될 것이다. 왜 이 지경이 되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취적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의 교과과정이 대학입시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유추로 대학의 교과과정이 취적시험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영문과 학과장은 가엾게도 일류 기업의 시험담당자를 찾아 다니며 우리 영문학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밀턴의 일부와 디킨스의 소설 어디를 꼭 시험에 내달라고 조르다가 퇴짜를 맞는 악몽을 자주 꾸게나 되지 않을까.....

나이가 들면 옛날이 그리고 또 좋아 보인다. 그러한 면에서 나도 나의 대학시절을 페미화하여 간직한다고 말 들을 만한 것이다. 사실 따져보면 요즘은 영문학도들이 전에 비해 훨씬 조직적으로 더 많은 분량의 작품을 다루는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어떠한 이념 또는 비평경향이 영미문단에서 판을 치는가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대처한다. 참으로 경학해 마지않고 얼른얼른 따라가지 못하는 자신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비평의 경향이야 어떠한 작품을 읽는 재미는 여전한다는 것이다. 더 다행스러운 점은 좋은 작품일수록 어떠한 비평경향에도 우뚝 서 있음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사전을 열심히 찾아가며 시 한 귀절의 의미를 요모조모로 살펴보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리라. ■